

Sabir, 유럽에 65만톤 크래커 건설

네덜란드 Geleen에 No.3 투자 검토 ... 유럽 기초유분 공급부족 해소

Sabir이 네덜란드 Geleen의 Sabir EuroPetrochemical 부지에 No.3 에틸렌(Ethylene) 크래커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abir은 2002년 DSM의 석유화학사업부를 인수함에 따라 현재 Geleen에서 2개의 에틸렌 크래커를 가동하고 있다.

No.3 크래커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65만톤이고, 프로필렌(Propylene)은 44만톤이다. 프로필렌은 Butene을 투입해 Metathesis 프로세스를 채용해 13만5000톤을 추가 생산함으로써 총 생산능력이 57만5000톤에 달하게 된다.

Sabir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기초유분 공급이 부족해 BP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에틸렌 34만톤 및 프로필렌 37만5000톤을 공급받고 있다.

사업타당성 검토는 2004년 10월 마무리할 예정인데 2008년 완공하고 건설비용은 5억유로(6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원료는 Crack Condensate 및 나프타(Naphtha)이며, Furnace 중 1개는 기존 크래커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Ethane을 재활용한다.

만약 No.3 크래커 건설이 마무리되면 Geleen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125만톤, 프로필렌은 67만5000톤으로 확대된다.

No.3 크래커 프로젝트는 Sabir EuroPetrochemical의 다운스트림 플랜트 건설을 포함하는 10억유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Sabir은 독일 Gelsenkirchen 및 Geleen에 LDPE(Low-Density Polyethylene) 플랜트를 신규 건설하고 2개 부지의 PP(Polypropylene) 플랜트는 증설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6/28>